

여수국가산단 대기업 집단협 '난항'

중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 국가산단에서 사측과 노동조합 간 임금과 단체협약이 진척되고 있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여수국가산단 업체들에 따르면 입주시 가운데 LG화학·GS칼텍스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 대기업 공장을 주축으로 집단협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사의 경우 노조와 사측간 제시 금액이 맞지 않아 총파업 등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LG화학 노조는 지난달 27일 파업 찬반 투표를 87.6%로 가결시킨 뒤 총파업 순서를 밝히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미 집행부 사발식에 이어 23일 집행부 파업에 돌입했다. 이 노조는 27일 전근부파업을, 30일에는 총파업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으나 최근 협상에서 잠정 합의하면서 일단 위험 수위는 넘겼다.

이 회사 노조는 임금 11.32% 인상을 원했고, 회사는 5%를 제시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난달 26일 조정 신청 이뤄졌으나 지난 10일 노사 간 임금인상에 대한 견해차가 커 별다른 조정안 없이 추후 노사 간 성실한 교섭 진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은 종료된 바 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지난 13일 조정신청에 이어 1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노조는 84.8%가 찬성해 가결됐다. 노조는 임금 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3.6% 선으로 협상 중이다.

노조원 680여 명의 여천NCC도 지난 16일 조정 신청했다. 노조는 9.1%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4%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의 집단협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일부 노조는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총파업으로 예고하고 있어 자칫 중화학 공장의 가동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

특히 실질 연봉이 수천만~억대에 달하며 전국 노동자의 상위 3%(1억원 이상)내에 다수가 포함되는 여수국가산단 생산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인근 중소 업체나 하청 업체로 전해지는 연쇄 파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로 총파업을 예고한 한 업체의 생산직 연봉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포함해 여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회사는 조합원이 600여 명에 그치지만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을 포함해 평균 연봉이 1억 1000만 원이며, 70% 이상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사원의 경우 4000여만 원 부터 연봉이 시작되지만, 장기

일부 조정 종료 · 집행부파업 등 단체 행동

임금 제시안 폭 좁히지 못하고 '차일 피일'

근속자의 경우는 연봉 2억 원에 달해 신입사원이 많을수록 평균 연봉은 줄어들게 된다.

850여 명의 직원 가운데 노조원 500여 명인 한 공장의 경우도 최근 신입 사원을 많이 뽑아서 평균 연봉은 낮아진 연평균 8000만 원을 넘어지고 있다.

여수산단 내 한 정유회사는 임금 인상률을 동종업계 추세에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단 1%+α로 임금협상을 마쳤다. 이 회사 역시 지난해 말 생산직과 일반직을 포함

해 직원 1인당 1억 1300만 원의 평균연봉이 지급된 것으로 공시됐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 임금 근로자 연봉분석 결과 대기업 평균 연봉은 6500만 원, 중소기업은 3500만 원으로 집계돼 여수산단과는 큰 차를 보이고 있다.

여수산단 노동자들은 중화학 공장이 안고 있는 특성상 공장을 멈출 수 없고 위험 요인이 많은 데다 3교대 근무 및 야근 휴일 특근 등을 통해 연봉이 정해진다. 여기에 화학 경기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성과

급도 중요 요인이다.

따라서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연봉이 높게 인식되는 것도 이 같은 화학공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수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협 협상 결과와 조정, 또 파업 예고 등 여수산단 대기업과 노동조합의 집단협 분위기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노동 조건 개선, 대기업의 사회 기여 분위기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상충하는 것 같다"면서 "노사가 진통 끝에 얻은 협상이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끌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독도는 한국 땅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 수원 당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이 옛 도청 복원할 수 있는 2017 문화전당장 뽑아야”

광주시민 · 문화예술단체, 인사 압축설 의혹 제기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문화예술단체가 시민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인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24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됐던 아시아문화전당장 5차 공모가 마감되고 서류 심사·면접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후보를 압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면 장관이 적격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서류 심사와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3명의 후보 압축설이 나돌고 있고, 특정인을 임무에 둔 요식 행위라는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옛 전남도청 복원과 전당 활성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전당장은 옛 전남도청을 복원, 5·18을 문화전당의 정체성으로 확립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며 “옛 전남도청을 민주평화교류원의 전신관으로 활용한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전당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시작부터 옛 전남도청 별관 논쟁까지 광주시민들이 배제돼 왔다”며 “최근 문화전당장 공모를 둘러싼 정황은 또다시 시민들을 대상화시키고 광주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문체부가 의지만 보인다면 공개적인 시민 참여 방법은 다양하고 많을 것이다. 광주에서 책임 운영 기관장을 시민들의 힘으로 선출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재 후보로 선정된 인사를 포함, 다양한 인사들이 시민들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새 인사체계를 도입·운영하라”고 제안했다.

최남규 기자

담양서 경운기 전복사고 1명 숨져

담양에서 경운기가 넘어져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44분께 담양군 창평면 한 농로에서 A(76)씨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주행 중에 전복됐다.

A씨는 넘어진 경운기에 깔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시비 붙은 손님 흥기로 숨지게 한 5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유흥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장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A(53)씨의 옆구리를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장씨는 주점 화장실에서 A씨와 시비가 붙은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님 여러 명이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주점에서 장씨가 ‘자신도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이유로 A씨와 승강기를 벌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시비 직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으며, 이 사이 흥기를 가져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장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9명 중경상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전기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4일 오후 1시46분께 울산 남구 사평로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본관 건물 2층 전기실에서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기실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이모(46)씨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다친 작업자 가운데 3명은 얼굴과 기도, 전신 등에 2~3도 화상을 입어 부산과 서울 등 타 지역 화상치료전문병원으로 현재 후송되고 있다.

폭발 이후 전기실 내부에 불이 났으나 공장 자체소방대에 의해 6분 만에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6600V의 전기를 살비에 공급하는 전동기제어반(MCC) 판넬작업 도중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자화장실서 몰카 찍던 남성 검거

‘동서울터미널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됐던 남자화장실 몰카 카메라(몰카)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동서울터미널 3층 남자 화장실 양변기 칸에서 열 칸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진행됐다. A씨는 화장실 양변기 칸에 숨어 있다가 열 칸에 남성이 들어오면 칸막이와 바닥 사이 공간으로 슬며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이어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며 남성을 지켜보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칸 밖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을 수상하게 여긴 신고자에 의해 달미를 잡혔다.

앞서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동서울터미널 남자 화장실에서 일부 남성이 몰카를 찍고 음란행위를 한다”는 괴담이 퍼져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범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A씨가 개인 소장 목적으로 단독 범행했다고 판단 중이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토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뉴스